

대학생의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박미정* · 문혜경* · 오두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기억력을 비롯하여 지남력, 감정조절능력 등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성격변화로 인한 일상생활 및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Andren & Elmstahl, 2005), 노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모두에게 사회적 관계 변화, 삶의 질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Yoo, Kim, & Kim, 2010). 한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 치매 노인 인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5년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노인은 약 65만 명으로 치매의 유병률이 9.8%에 달하며, 2024년경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이러한 치매노인인구 증가의 심각성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적극적인 국가 정책 개입이나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와 같은 구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주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치매를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치매노인과

그 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다(Ro, Huh, Kim, & Kim, 2013; Song & Lim, 2016).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 노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치매와 관련된 연구도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매 환자 대상으로 인지 기능 향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Park, Park, Yoon, & Choi, 2015),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호제공자들의 어려움과 극복력을 확인하는 연구(Jang & Yi, 2013), 치매정책과 관련된 인식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Park, Park, & Kim, 2015)를 비롯하여 일반인 혹은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Cho, 2016; Kwon, 2008; Ro et al., 2013)이 이루어져 왔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주로 치매와 관련된 지식과 태도에 대한 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치매의 지식과 태도 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치매 대상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 효과 검증에 앞서 치매노인을 사회의 일원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 기초과학연구소 조교수

**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 기초과학연구소 조교수(교신저자 E-mail: doonoh@hoseo.edu)

• Received: 20 October 2017 • Revised: 6 December 2017 • Accepted: 14 December 201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Oh, Doonam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79-20, Hoseoro, Baebangeup, Asan 31499, Korea

Tel: 82-41-540-9532 Fax: 82-41-540-9558 E-mail: doonoh@hoseo.edu

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인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감이란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나 주관적 느낌을 의미한다(Bogardus, 1993).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태도의 한 차원으로 거리감 표현은 결과적으로 개인 태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동시에 집단이나 범주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어떤 것이 개인의 태도 차이를 발생시키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Kadushin, 1962). 이러한 용어가 국내연구에서는 주로 장애인, 에이즈 감염자,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일반인들의 사회적 거리감과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Jeong, 2011; Kang & Han, 2013), 그 동안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최근 증가 추세의 치매노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태도나 사회적 편견을 사회적 거리감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치매 지식과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치매 지식과 태도에 대한 확인은 의료인이나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진출의 전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들은 향후 사회에서 노인부양의 주요 주체가 될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변화와 치매관련 사회문제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대상으로서(Lee, 2006), 치매노인에 대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확인해보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사회생활과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것이므로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치매노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 Yang, 2012).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지식과 태도를 알아보았으므로(Lee, Kim, & Kim, 2014; Park et al., 2015), 이를 토대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관성을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편견을 확인하고 이들의 치매 지식과 태도가 사회

적 거리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 대학생의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학생의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치매 지식 및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 소재한 H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들이다.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예측요인의 수 14(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의 수),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를 설정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최소 194명이다(Faul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3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5부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치매 지식

Cho 등(2008)이 개발하고 SunWoo (2014)가 사용한 치매지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의 원인, 역학 및 제도, 증상 및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지식을 묻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대상자로 하여금 문항의 진술내용이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에 표기하게 하였으며 옳게 답하였으면 1점, 틀리게 답하였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면 0점으로 처리하여 총 0점에서 15점까지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SunWoo (2014)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7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 치매 태도

Song (2002)이 개발하고 Lee, Woo, Kim, Lee와 Im (2009)이 사용한 치매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치매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는 좋고 나쁜 감정과 행동적 경향성을 확인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Lee 등(200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3)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Choi와 Park (2004)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 의지 및 접촉과 관련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Choi와 Park (2004)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나 주관적 느낌을 확인하는 사회적 의지 20문항, 접촉 25문항, 지식 10문항, 정서 8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 지식 및 태도와 유사한 하위영역인 지식과 정서 문항들은 제

외시켰다. 또한 노인 및 성인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통해 '나는 정신장애인이 일하는 곳에 직업을 가질 수 있다'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과 '나는 정신장애학생과 같은 학급에 속해 있다'와 같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제외한 26문항(사회적 의지 10문항, 접촉 16문항)만을 치매노인에 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문항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가 적음을 의미한다.

완성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는 타당도 검정을 위해 간호학과 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 받았으며, 내용타당도 계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산출 결과 26문항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의 경우 Choi와 Park (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의지 요인 20문항과 접촉 요인 25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Cronbach's α 값 .94, .85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26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6이었고, 하위영역인 사회적 의지 10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2, 접촉 16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75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연구 대상자의 동의 하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 및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 학과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전공 학과의 교수와 학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자료수집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진행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구하였다. 그 결과 건강과 관련된 전공 학과 중에서는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물리치료학과에서,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 학과 중에서는 기계공학과, 생명공학과, 영상미디어학과에서 자료수집을 허락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해당 학과의 학년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설문 기간과 시간, 설문 장소를 공지하였다. 그 후 연구참여를 희망한 자들은 학생회관 내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표식이 없는 봉투에 직접 밀봉하여 연구보조원에게 설문지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설문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설문지 작성자 모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의 특성이 연구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건강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건강과 관련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유사한 수로 표집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과 관련된 전공 학생과 건강과 관련되지 않는 전공 학생이 각각 130명씩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Window versio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양측검정,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비롯하여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자료가 정규분포인 경우에는 t-test, One-way ANOVA로, 자료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관련 특성을 통제한 후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46.8%, 여학생은 53.2%였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이 각각 41.5%, 4학년이 15.7%였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자는 34.0%였다. 전공의 경우 간호학, 물리치료학, 식품영양학과와 같이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을 가진 자가 49.4%, 기계공학, 생명공학, 영상미디어학과와 같이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전공을 가진 자가 50.6%였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이 있는 자는 70.6%였으나 실제 노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자는 6.8%에 그쳤다.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의 경우 대상자의 74.9%는 접촉한 적이 없었으며 2.6%만이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28.5%만이 치매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23.8%가 대학에서 전공 교수를 통해 치매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 중 98.7%가 치매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었는데, 70.2%가 대중매체를 통해 치매관련 정보를 접했다. 연구 대상자의 58.3%가 다양한 자원봉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치매노인 대상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는 21.3%에 불과하였다. 평생 시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보통 39.7%, 높음 38.5%, 낮음 21.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치매 지식 및 태도와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연구 대상자의 치매 지식은 점수가능범위 0~15점 중 7.43 ± 2.89 점을, 치매 태도는 점수가능범위 1~4점 중 2.98 ± 0.36 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점수가능범위 1~5점 중 3.56 ± 0.41 점을 나타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치매 지식은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 노인과의 동거 여부,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 자원봉사 경험, 조기 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t=10.67, p=.001$), 학년($\chi^2=16.86, p=.001$), 종교($t=4.21, p=.041$), 전공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x	M	110(46.8)
	F	125(53.2)
Grade	1st	97(41.5)
	2nd	3(1.3)
	3rd	97(41.5)
	4th	37(15.7)
Religion	Yes	80(34.0)
	No	155(66.0)
Major	Health related major	116(49.4)
	Non-health related major	119(50.6)
Senior member of the family	Yes	166(70.6)
	No	69(29.4)
Living together with senior member	Yes	16(6.8)
	No	219(93.2)
Contact with senile dementia	None	176(74.9)
	Sometimes	53(22.5)
	Often	6(2.6)
Experience of dementia related education	Yes	67(28.5)
	No	168(71.5)
	<i>By Health teacher in middle and high school</i>	11(4.7)
	<i>By Major professors in university</i>	56(23.8)
Experience of dementia information*	Yes	232(98.7)
	No	3(1.3)
	<i>Mass media</i>	165(70.2)
	<i>Internet</i>	90(38.3)
	<i>Technical book</i>	11(4.7)
	<i>Expert</i>	28(11.9)
	<i>Dementia patients and family</i>	16(6.8)
	<i>School class</i>	46(19.6)
Volunteer experience	Yes	137(58.3)
	No	98(41.7)
Volunteer experience for senile dementia	Yes	50(21.3)
	No	185(78.7)
Attention to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Low	51(21.8)
	Moderate	94(39.7)
	High	90(38.5)

*Multiple choices were possible.

Table 2. Level of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s, and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N=235)

Variables	M±SD	Possible range	Obtained range
Dementia knowledge	7.43±2.89	0-15	0.00-12.00
Dementia attitudes	2.98±0.36	1-4	1.55-3.84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3.56±0.41	1-5	2.12-4.81

($t=7.94$, $p=.005$), 치매관련 교육경험($t=27.57$, $p<.001$),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U=69.50$, $p=.017$),

치매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t=14.29$, $p<.001$)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 그룹

7.99±2.78점, '3학년' 그룹 8.25±2.58점, '종교 있음' 그룹 7.96±2.89점, '건강관련 전공' 그룹 7.95±2.90점, '치매관련 교육경험 있음' 그룹 8.91±2.15점,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 있음' 그룹 7.50±3.46점, '치매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있음' 그룹 8.76±2.56점으로 치매 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치매 태도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 노인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t=16.00, p<.001$), 학년($\chi^2=24.50, p<.001$), 종교($t=6.54, p=.011$), 전공($t=16.23, p<.001$),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chi^2=7.54, p=.023$), 치매관련 교육경험($t=33.91, p<.001$),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U=107.50, p=.040$), 자원봉사 경험($t=12.50, p<.001$), 치매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t=12.44, p=.001$),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F=31.82,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 그룹 3.06±0.32점, '2학년' 그룹 3.15±0.14점, '종교 있음' 그룹 3.06±0.35점, '건강관련 전공' 그룹 3.07±0.34점,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가 보통' 그룹 3.10±0.31점, '치매관련 교육경험 있음' 그룹 3.18±0.30점,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 있음' 그룹 2.98±0.36점, '자원봉사 경험 있음' 그룹 3.05±0.34점, '치매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 있음' 그룹 3.13±0.33점, '조기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음' 그룹 3.15±0.31점으로 치매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성별, 학년, 노인과의 동거 여부, 치매노인 대상 자원봉사 경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종교($t=11.13, p=.001$), 전공($t=4.42, p=.037$),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t=4.09, p=.044$),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chi^2=11.63, p=.003$), 치매관련 교육경험($t=17.23, p<.001$),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U=80.00, p=.022$), 자원봉사 경험($t=14.91, p<.001$),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F=16.49,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종교 있음' 그룹 3.68±0.41점, '건강관련 전공' 그룹 3.62±0.42점,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이 있음' 그룹 3.59±0.42점,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가 보통' 그룹 3.74±0.42점, '치매관련 교육경험 있음' 그룹 3.73±0.44점,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 있음' 그룹 3.57±

0.41점, '자원봉사 경험 있음' 그룹 3.64±0.40점, '조기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음' 그룹 3.72±0.43점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Table 3).

4. 치매 지식 및 태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간의 상관관계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치매 지식($r=.27, p<.001$) 및 치매 태도($r=.6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 지식 또한 치매 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5, p<.001$)(Table 4).

5.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오차항, 이상치 검사를 통해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1.63로 10 이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 1.86으로 기준값 2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최대 Cook's Distance 0.11로 1.0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타당한 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가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로 연구 대상자의 특성 중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를 보였던 종교, 전공,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 치매관련 교육 경험,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 자원봉사 경험,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를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 치매 지식 및 태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치매관련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종교, 전공,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 치매관련 교육 경험, 치매관련 정보습득 경험, 자원봉사 경험,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 변수가 투입된 모델 1의 경우,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0%였으며($F=8.59$,

Table 3. Differences of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s, and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235)

Characteristics	Category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s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M±SD	t/U/F/χ ² (p)	M±SD	t/U/F/χ ² (p)	M±SD	t/U/F/χ ² (p)
Sex	M	6.78±2.89	10.67 (.001)	2.88±0.38	16.00 (<.001)	3.53±0.43	1.45 (.230)
	F	7.99±2.78		3.06±0.32		3.59±0.39	
Grade*	1st	6.18±2.82	16.86 (.001)	2.85±0.36	24.50 (<.001)	3.49±0.40	5.16 (.161)
	2nd	4.67±4.16		3.15±0.14		3.51±0.45	
	3rd	8.25±2.58		3.10±0.32		3.64±0.42	
	4th	7.14±3.28		3.00±0.36		3.54±0.36	
Religion	Yes	7.96±2.89	4.21 (.041)	3.06±0.35	6.54 (.011)	3.68±0.41	11.13 (.001)
	No	7.15±2.86		2.94±0.36		3.50±0.39	
Major	Health related major	7.95±2.90	7.94 (.005)	3.07±0.34	16.23 (<.001)	3.62±0.42	4.42 (.037)
	Non-health related major	6.91±2.79		2.89±0.36		3.50±0.39	
Senior member of the family	Yes	7.47±2.85	0.10 (.758)	2.99±0.35	0.31 (.578)	3.59±0.42	4.09 (.044)
	No	7.34±3.00		2.96±0.39		3.48±0.38	
Living together with senior member*	Yes	6.56±3.20	1464.00 (.293)	2.93±0.37	1439.00 (.253)	3.65±0.40	1527.50 (.407)
	No	7.49±2.86		2.98±0.36		3.55±0.41	
Contact with senile dementia [†]	None	7.23±2.94	4.47 (.107)	2.94±0.37	7.54 (.023)	3.50±0.39	11.63 (.003)
	Sometimes	8.19±2.43		3.10±0.31		3.74±0.42	
Experience of dementia related education	Often	6.50±4.14		2.85±0.32		3.63±0.40	
	Yes	8.91±2.15	27.57 (<.001)	3.18±0.30	33.91 (<.001)	3.73±0.44	17.23 (<.001)
Experience of dementia information*	No	6.83±2.94		2.90±0.35		3.49±0.37	
	Yes	7.50±3.46	69.50 (.017)	2.98±0.36	107.50 (.040)	3.57±0.41	80.00 (.022)
Volunteer experience	No	2.00±3.46		2.60±0.22		3.09±0.16	
	Yes	7.74±2.65	3.83 (.052)	3.05±0.34	12.50 (<.001)	3.64±0.40	14.91 (<.001)
Volunteer experience for senile dementia	No	6.99±3.16		2.88±0.37		3.44±0.39	
	Yes	8.76±2.56	14.29 (<.001)	3.13±0.33	12.44 (.001)	3.65±0.40	3.08 (.081)
Attention to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No	7.07±2.87		2.94±0.36		3.54±0.41	
	Low	7.06±3.07	2.94 (.055)	2.71±0.39	31.82 (<.001)	3.35±0.40	16.49 (<.001)
	Moderate	7.10±2.84		2.95±0.28		3.51±0.33	
	High	8.02±2.77		3.15±0.31		3.72±0.43	

* Mann-Whitney U-test, [†] Kruskal-Wallis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s, and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N=235)

Variables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s
	r(p)	r(p)
Dementia attitudes	.25 ($\langle .001$)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27 ($\langle .001$)	.67 ($\langle .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N=235)

Predictors	B	SE	β	t	p
Model 1					
Constant	2.65	0.23		11.69	$\langle .001$
Religion*	0.14	0.05	.16	2.74	.007
Major†	-0.03	0.06	-.03	-0.50	.616
Senior member of the family*	0.07	0.05	.08	1.35	.177
Contact with senile dementia	0.13	0.05	.16	2.59	.010
Experience of dementia related education*	0.07	0.07	.08	1.11	.269
Experience of dementia information*	0.26	0.22	.07	1.19	.236
Volunteer experience*	0.11	0.05	.13	2.14	.034
Attention to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0.15	0.04	.28	4.29	$\langle .001$
	Adj R ² = .210, F=8.59, p $\langle .001$				
Model 2					
Constant	1.09	0.23		4.66	$\langle .001$
Religion*	0.08	0.04	.09	1.90	.059
Major†	-0.07	0.05	-.09	-1.57	.119
Senior member of the family*	0.08	0.04	.08	1.74	0.08
Contact with senile dementia	0.10	0.04	.12	2.53	.012
Experience of dementia related education*	-0.03	0.06	-.03	-0.53	.594
Experience of dementia information*	0.06	0.18	.02	0.31	.754
Volunteer experience*	0.17	0.04	.08	1.61	.108
Attention to early prevention of dementia	0.03	0.03	.06	1.09	.278
Dementia Knowledge	0.01	0.01	.10	1.82	.070
Dementia Attitudes	0.69	0.07	.60	10.57	$\langle .001$
	Adj R ² = .488, F=22.75, p $\langle .001$				

dummy variable * 1=Religiousness, 0=Unreligiousness

† 1=Health related major, 0=Non-health related major

$p\langle .001$), 종교($\beta=.16, p=.007$),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beta=.16, p=.010$), 자원봉사 경험($\beta=.13, p=.034$),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 정도($\beta=.28, p\langle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모델 2의 경우,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설명력이 약 48.8%로 증가하여($F=22.75, p\langle .001$), 치매 지식 및 태도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약 27.8%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델 2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 여부($\beta=.08, p=.008$),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beta=.12,$

$p=.012$), 치매 태도($\beta=.60, p\langle .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 5).

IV. 논 의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른 치매유병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비롯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앞서 대중들의 이해와 관심 특히 노인부양의 주요 주체

가 될 대학생들의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편견 감소와 수용성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 연구대상자들의 70.6%가 가족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는 6.8%에 불과하였다. 이는 핵가족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대학생들이 노인들의 가치와 생활을 익히고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완화시킬 수 있다(Kwon, Noh, & Jang, 2013).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학생들 중에서 치매노인과 접촉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약 25.1 % 정도였는데, 접촉 대상은 가족보다는 주로 치매노인 봉사활동을 통한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28.5%의 학생들 중 대부분은 치매교육을 대학에서 전공교수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었고, 치매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공의 학생들로 이들이 치매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치매에 관련된 정보를 접해 본 경우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있었는데 이들의 정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대중매체의 특성상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흥미위주로 이루어져 신뢰도가 낮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치매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선입견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공되는 치매 정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수정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대학생들의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었으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태도에 대한 교육의 제공은 대학생들에게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점수는 15점 만점에

7.43점으로 중위값 정도의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치매지식 100점 환산점수 49.5점은 유사 도구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ho (2016)의 연구에서의 100점 환산점수 64.8점, Park 등(2015)의 치매지식 74.2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전공분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Park 등(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간호대학생이었고, Cho (201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건강과 관련이 적은 인문사회대 전공의 대학생이 일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건강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치매지식점수가 건강과 관련이 적은 전공 대학생들의 치매 지식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건강관련 전공 대학생들에서 치매 지식 점수가 그렇지 않은 다른 대학생들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건강과 관련성이 적은 전공 대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거나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치매지식에 대한 문항 중 치매의 예방 및 치료에 관련된 문항, 예를 들어 치매노인을 위한 환경의 변화부분이나 약물로 치매 완치 가능성과 같은 문항에서는 대상자들의 건강관련 전공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오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치매관련 지식 내용 중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토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 점수는 4점 만점에 2.98점(100점 환산점수 74.5점)으로 비교적 치매에 대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행동적 경향성이 긍정적임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도구로 대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보았던 Cho (2016) 연구의 100점 환산점수 74.8점과 유사하였고, 일반 성인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를 보았던 Kim (2016)의 100점 환산점수 91.1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일반 성인들보다는 대학생들이 치매에 대한 정보접촉이나 치매노인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치매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었던 건강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서 치매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치매 태도와 노인과의 실제 동거여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대학생들의 치매 태도를 본 Kwon (2008)의 연구에서 현재 노인과의 동거여부가 치매인

식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치매 태도에 있어 치매노인과의 접촉정도가 보통인 경우가 접촉이 없는 경우나 오히려 자주 있었던 경우보다 더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봉사활동 등에서 사전에 정확한 이해 없이 중증 치매노인들을 자주 접촉한 경우 오히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나타났는데, 그 동안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다른 대상의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4점 사이를 보여주었고 (Jeong, 2011),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3.10-3.12점(Kim & Park, 2016)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적 거리감은 주로 사회소수자, 외국인 노동자나 특정 질환의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상의 형태에 따라 종교, 대상자와의 접촉여부, 관련정보 습득 경험 등이 사회적 거리감의 관련변인으로 확인되었다(Kim, 2003; Ko & Mok, 2013).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치매관련정보 습득 경험이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치매 지식과 태도가 약 27.8%의 추가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었다. 치매노인이 아닌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선행연구들에서도 관련 지식 및 태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Kim & Park, 2016; Lee & Lee, 2016), 본 연구에서도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사회적 거리감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을 태도로 간주하여 감정적 차원, 인지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데, 결국 선택적 상호작용에 관한 양적인 행동의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은 그 특정집단, 지역, 계층 등에 대한 관심 정도 즉 지식과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Song, Lee, & Hong, 2001). 그러므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 편견을 낮추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진출 전 단계이자 부양의 주요 주체가 될 대학생 시기부터 건강관련 전공 대학생뿐 아니라 치매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대학생들에게도 치매관련 지식과 수용적 태도 함양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기획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치매노인에게 갖고 있는 편견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고, 이들의 치매지식 및 태도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종교, 치매노인과의 접촉 정도, 이전 자원봉사 경험, 조기치매예방에 대한 관심정도를 비롯하여 치매 지식 및 태도가 주요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치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 내로 수용하여 잘 돌볼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감 측정도구의 개념과 관련특성 확인에 있어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치매노인에 적합한 사회적 거리감 개념을 반영한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의 치매 지식과 태도 정도를 확인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추후 대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치매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References

Andren, S., & Elmstahl, S. (2005). Family

- caregivers' subjective experiences of satisfaction in dementia care: Aspects of burden, subjective health and sense of coherenc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9(2), 157-168.
- Bogardus, E. S. (199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ety & Social Research*, 17, 265-271.
- Choi, K. A., & Park, S. H. (2004). Effects of the link program between special and ordinary school on high school students' social distance toward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 20(1), 279-314.
- Cho, J. Y. (2016).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al needs toward dementia in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257-265. <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257>
- Cho, M. J., Kim, K. W., Kim, M. H., Kim, M. D., Kim, B. J., Kim, S. G., et al. (2008).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Jang, H. Y., & Yi, M. S. (2013). Effects of burden and family resilience on the family adapt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with dementi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5(5), 725-735. <http://dx.doi.org/10.7475/kjan.2012.24.6.725>
- Jeong, J. S. (2011).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ocial distance from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un.
- Kadushin, C. (1962). Social distance between client and profession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7, 517-531.
- Kang, H. Y., & Han, S. Y. (2013).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1), 166-178.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1.166>
- Kim, J. H. (2016). *A study on the dementia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dementia attitudes and dementia knowledge of the elderly in the agricultural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Daegu.
- Kim, J. H., & Park, H. O. (2016). Th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4), 129-155.
- Kim, M. O. (2003). A study of social distance on people with disability and self concepts of social work students. *Mental Health & Social Work*, 15, 138-167.
- Ko, U., & Mok, H. S. (2013). A study on non disabled people'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4), 127-151.
- Kwon, B. I. (2008).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 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Chungju.
- Kwon, M. S., Noh, G. Y., & Jang, J. H. (2013). University student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3), 633-646. <http://dx.doi.org/10.5932/>

- JKPHN.2013.27.3.633
- Lee, H. J. (2006). Care 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focusing on elderly couple household.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1), 45-62.
- Lee, M. S., & Yang, S. N. (2012).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attitude,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senio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265-273.
- Lee, M. S., Kim, M. C., & Kim, S. K. (2014). Study on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and physical therapists towards seniors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21-29.
- Lee, S. Y., & Lee, K. H. (2016). Social distanc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s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56-366. <http://dx.doi.org/10.12934/jkpmhn.2016.25.4.356>
- Lee, Y. W., Woo, S. M., Kim, O. R., Lee, S. Y., & Im, H. B. (2009). Relationships betwee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and preventive behavior among low income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1(6), 617-627.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16*. Retrieved October 17, 2017, from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160
- Park, S. J., Park, K. S., & Kim, Y. J. (2015).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467-4477.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67>
- Park, J. S., Park, S. J., Yoon, J. Y., & Choi, K. G. (2015). Efficacy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physical function in the elderly non-demented women-focused on senior citizens center.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3), 79-96. <http://dx.doi.org/10.14519/jksot.2015.23.3.07>
- Ro, H. L., Huh, Y. J., Kim H. J., & Kim Y. J. (2013). A Q-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dementia. *Journal of So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3), 301-317.
- Song, K. J., Lee, J. C., & Hong, Y. O. (2001).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 toward social stigmatized group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7(1), 119-136.
- Song, M. S., & Lim, K. S. (2016). The barriers and solution of providing long-term care services at home for the beneficiaries with mild dementia: a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2), 259-273. <http://doi.org/10.5932/JKPHN.2016.30.2.259>
- Song, Y. H. (2002).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dementia for middle-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SunWoo, H. M. (2014).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 on dementia among community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Yoo, M. S., Kim, Y. S., & Kim K. S. (2010). A study about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urden and coping ability for family caregivers caring for dementia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0(4), 1117-1127.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o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Park, Mije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 The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 Hoseo University)

Moon, Heaky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Oh, Doona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Purpose: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o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based on 235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15, 2017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were measur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Mann-Whitney U-test, Kruskal-Walli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fter adjusting for the general and dementia-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were dementia attitude. Moreover,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explained 27.8% of the variance in social distance from senile dementia among university students.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educators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dementia attitude and to develop plans to increase dementia knowledge in order to reduce university students' prejudice against senile dementia.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ocial distance